

탈락

1. 자음군 단순화

▷ 종성에 두개의 자음이 올 수 없으므로
겹받침이 올 때 앞, 뒤의 자음 중 하나가
탈락함.

▷ 르, 리, 리프 는 앞이 탈락

나머지는 뒤가 탈락.

따라서 앞이 탈락하는 것만 위우면 된다.

▷ 다만 예외가 있는데

① 어간 종성 '리' 뒤에 '기'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'리'에서 '기'이 탈락함.

ex) 맑다 [막따] vs 맑고 [말꼬], 맑기 [말끼]

② 동사 '맑다'의 어간 '맑-'은 '리'이 탈락함.

ex) 여덟 [여덜] vs 맑다 [말따]

③ 형용사 '넓죽하다, 넓적하다, 넓둥글다' 등은 '리'이 탈락함.

ex) 넓죽하다 [넙쭈카다], 넓적하다 [넙쩌카다]

넓둥글다 [넙똥글다]

▷ 자음 단순화는 음·글·주와 마찬가지로 연음 시
환경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짐.

접반침 + 형식 형태소 모음 ⇒ 뒷받침이 연음됨.
ex) 닭이 [달기]

접반침 + 실질 형태소 모음 ⇒ 자·단 후 연음됨.
ex) 흙 위에 [히키에]

▷ 접반침 중 뒷받침이 'ㅅ'인 것들은 연음 시
'ㅅ'이 'ㅆ'으로 바뀜.

ex) 값이 [갑씨], 샅이 [삭씨], 외곡으로 [외글씨로]

탈락

2. 'ㄹ' 탈락

i) 어간 끝음절 종성 'ㄹ' 뒤에 'ㄴ, ㄹ, 시, 오'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'ㄹ'이 탈락함.

ex) 살다 + -니 ⇒ 사니 [사니]

살다 + -세요 ⇒ 사세요 [사세요]

살다 + -습니다 ⇒ 삽니다 [삽니다]

살다 + -오 ⇒ 사오 [사오]

ii) 단어의 형성 시 (파생, 합성) 'ㄹ' 뒤에

'ㄴ, ㄹ, 시, 주'가 오면 'ㄹ'이 탈락함.

이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님.

ex) $\left(\begin{array}{l} \text{달} + \text{님} = \text{달님} \\ \text{vs} \\ \text{딸} + \text{님} = \text{따님} \end{array} \right)$ (이 예시쌍 기억!)

솔 + 나무 = 소나무

활 + 살 = 화살

▷ 'ㄹ' 탈락은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
유일한 자음의 음운 변동임.

탈락

3. 'ㅎ' 탈락

▷ 어간 끝음절 중성 'ㅎ'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'ㅎ'이 탈락함.

ex) 쫓아 [조아], 쌓아 [샤아]

▷ 'ㅎ' 탈락은 축약, 자-단과 헛갈릴 수도 있음.

ex) 끌고 [끌코]

끌어 [꺼너]

→ $ㅎ + ㄱ = ㄱ$

축약이 일어남.

'ㅎ' 탈락 아님.

→ 'ㅎ' 탈락 후 L연음됨.

자-단이 있다면 'ㅎ'이

바로 연음되어 [꺼너]

가 되었을 것임.

축약

1. 저음 축약 (저센소리되기)

▷ 'ㅎ' 과 저센소리가 존재하는 예사소리

'ㅂ, ㄷ, ㄱ, ㄷ, ㅈ' 가 만나면 서로 캡쳐져

'ㅍ, ㅌ, ㅋ, ㅊ' 가 됨. 이는 양성이 두 가지임.

[종성 ㅎ + 초성 ㅂ, ㄷ, ㄱ, ㄷ, ㅈ → ㅍ, ㅌ, ㅋ, ㅊ
ex) 풍다 [조타], 날다 [나타]

[종성 ㅂ, ㄷ, ㄱ, ㄷ, ㅈ + 초성 ㅎ → ㅍ, ㅌ, ㅋ, ㅊ
ex) 목화 [모과], 만형 [마형]

▷ 음·글·귀 또는 자·단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축약이
이 들보다 나중에 일어남.

ex) 옷 한 벌 → 온한벌 → [오탄벌]

닭 한 마리 → 닥한마리 → [다칸마리]

첨가

1. 'ㄴ' 첨가

▷ 받침 뒤에 실절 형태소 단모음 'ㅣ' 또는 반모음 'ㅍ'가
오면 초성에 'ㄴ'이 첨가됨. (형식 형태소면
연음이나 구개음화가 발생)

ex) 식용유 [시공뉴], 급행열차 [그평열차], 흙이불 [흔니불]

▷ 음-끝-기나 자-단과 같이 일어나면 어려움.

ex) ^{자-단}삭일 → ^{ㄴ첨가}삭일 → ^{비음화}삭닐 → [상닐]

탈락, 축약, 첨가 중 **순수 음운 변동**인 것과 **형태 음운 변동**인 것

▷ **순수 음운 변동**

i) 탈락 중 자음군 단순화

ii) 자음 축약

▷ **형태 음운 변동**

i) 탈락 중 'ㄹ' 탈락 (형성, 어간, 어미), 'ㅎ' 탈락 (어간, 어미)

ii) 'ㄴ' 첨가 (실질 형태소)